

자동차 센서모듈 조성 19억·무안공항 활주로 연장 20억 등 미반영

# 광주·전남 국비 아쉬운 '가위질'

여수~남해도로 100억·송정~순천 경전선 48억도

광주와 전남도는 친환경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자동차 100만대 생산 기지 조성) 예산, 호남고속철 2단계(광주 송정~목포) 등의 내년 현안과 관련 국비를 무난히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수년간 시도했으나 내년 예산에서도 제외되거나 일부 신규사업도 잘려나가 아쉬움도 남겼다. 무안공항 활주로 확장 사업, 남도문예 르네상스 관련 사업,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사업 등은 특히 '아픈 손가락'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의 내년 국고 예산은 당초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조 7664억원보다 34건 628억원이 추가 반영돼 1조 8292억원을 확정지었다. 전남도도는

내년 국고 예산은 669건, 6조205억원으로 올해보다 무려 4321억원이 늘었다. 전남도의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7.7%)은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7%)의 2배를 넘는다.

광주시는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사업비가 반영돼 반색하면서도 예초 요구액 403억원보다 적은 130억 원만이 반영돼 약간 아쉬운 상태다. 또한 자율형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신개념 자동차 센서모듈 창조기반 조성' 사업비(19억원)도 빠졌다.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국비 사업에 반영되지 못해 추진을 담보하기 어려워진 현안도 있다.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여수~남

해 도로(동서 해저터널) 건설(건의액 100억원), 광주 송정~전남 순천 경전선 단선 전철 건설(48억원)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 계획에 포함된 4개 세부 사업(55억5000만원) 가운데 해양수산 과학원 청사 이전(10억원)만 심의를 통과해 전체 사업 추진이 위정거리가 됐다. 해양수산 융복합 벨트 조성은 4개 분야, 19개 과제에 5307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선도 사업 추진부터 제동이 걸렸다. 무안공항 활주로를 위해 추진하는 활주로 연장(20억원) 사업은 올해 심의에서도 고배를 마셨다. '남도문예 르네상스' 사업의 핵심으로 전남도가 추진하는 2018년 세계 수목화 비엔날레 사전 행사 성격인 2017년 국제 수목화 교류전 개최(5억원) 비용도 국비에서 확보하지 못했다.

국립 기상과학관 건립(55억원), 유·청소년 스포츠 체험캠프 조성(10억원), 과학로 캣 최적화 개발(5억원), 천일염 유통센터 건립(3억) 등 사업도 미반영됐다.

전남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예산은 국비 40억원이 반영됐지만 이에 매칭할 도비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도는 도의회 예산 심의에서 관련 예산 10억원을 요구했지만,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국비 지원액에 대한 도의 매칭 비용으로 18억5000만원을 요구해 도는 내년 추경예산 심의에서 예산을 부활시킬 계획이다. 이밖에 새마을운동 기념사업(5억원)은 정부 예산안에조차 들어가지 못해 전액 삭감을 피하지 못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고향희망심기사업' 평가

광양·곡성·강진 우수

행정자치부의 '2016년도 고향희망심기사업 평가'에서 광양시, 곡성군, 강진군이 우수사례로 선정돼 각각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는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부는 출향인사들의 고향사랑운동 붐을 조성하기 위해 고향봉사, 기부, 방문 등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첫 평가에서 전국 10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광양시는 고향 뿌리알기 문화탐방과 고향 전통시장 방문하기 사업을 펼쳤으며, 곡성군은 지역민과 함께 하는 향우회 밴드 운영 및 고향 초등학생 초청 서울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했다. 강진군은 의료봉사 및 장학금 1인 1구좌 갖기 운동 등을 추진했다.

고령농 전남도 노인소통실장은 "각 시·군은 물론 도 차원에서도 향우들과의 교류·협력을 더욱 강화해 '고향희망심기 운동'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말바우 시장에서 SI 방역 소독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통시장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판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내 닭·오리 판매점에서 복구청 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있다.

말바우 시장에서 AI 방역 소독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전통시장에서 닭·오리 등 가금류에 대한 판매제한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5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시장 내 닭·오리 판매점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장기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서둘러라"

피해대책위 "부동산 가격 하락 주민재산권 침해" 개발 촉구

10년 이상 장기표류중인 광주 광산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인근 주민들이 조속한 개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어등산관광단지 피해대책위원회는 5일 오후 광주시청 행정동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단지 사업 부지가 11년 이상 민등산으로 무단 방치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과 주거환경 악화로 인해 주민 재산권

과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특히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반대하고 시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시민협의체인 어등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태스크포스(TF)를 강력히 규탄하고 즉각 해산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또 "오라기락 운영하는 광주시정을 규

탄한다"며 "광주시장은 과감한 결정으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어등산 인근 운수마을 주민 50여 명이 참석했다.

어등산 관광단지사업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한 어등산 일원(273만6000㎡)에 유원지와 골프장, 경관녹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시작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관련

사업을 포기하면서 10년 넘도록 사업부지는 빈터로 남겨 뒀고 사업은 장기표류돼 왔다. 현재는 27억 규모의 골프장만 운영되고 있다.

사업 시행자인 광주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주)간 갈등 요인이던 유원지 개발투자비 반환 소송에 대해 법원이 지난 6월 "도시공사는 어등산리조트에 229억원을 지급하라"고 강제 조정하면서 갈등은 일단락됐으나, 이후 시가 특혜 논란과 시민단체 반발을 의식해 조정안을 거부하면서 TF 팀을 중심으로 대안 모색에 나섰다. /채희종기자 chae@

## 광주시·전남도 국비확보 노력 돋보였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는 '최순실 게이트'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여소야대 정국을 적절히 이용하며 '예산 전쟁'에 높은 성과를 냈다. 지난달 말부터는 사실상 국회에서 상주하며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기재부 등 각 부처 장·차관, 실국장 등을 공략했다.

윤장현 시장은 휴가를 취소하는가 하면, 행정·경제 양 부시장 및 실국장들이 서울에서 수시로 정부 인사와 국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국고 예산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연초부터 기재부를 비롯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국·과장 등 실무선까지 방문해 사업을 설명하고, 각 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5차례 개최했다. 또 지역 연고 국회의원 39명과 실국장 하이라인제 운영, 국고 확보를 위한 100일작전 등을 전개하기도 했다. 오랜 준비와 노력은 올해 대비 예산 증가율 7.7%의 성적표를 남겼다. 국가 전체 예산 증가율(3.7%)의 2배를 넘는 수치다.

윤시장 '이동 시청' 가동 기재부 등 공략  
이지사 10여차례 국회 방문 총력전 성과

정서 이 지사가 10차례에 걸쳐 직접 국회의원들을 수시로 만날 수 있도록 '이동 시청'을 가동했다. 윤 시장은 국비 확보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신규사업 발공해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세종시와 서울 정부청사, 국회를 방문했다.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예산정책간담회는 물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과 별도의 예산정책협의회도 가졌으며, 수시로 국회 상임위원장과 경제부총리를 방문했다. 특히 광주·대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참여하는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지난 8월에는 실국장 총동원령을 내려 중앙부처와 정치권 접촉에 힘썼다.

우기종 정부부처는 "전남은 재정자립도 16%로 전국 최하위, 도로 포장률도 78.7%로 전국 평균(82.5%) 이하"라며 "전남이 국비 확보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이유"라고 정부부처 관계자들을 설득하기도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전남도 전국 첫 '병원실버 코디네이터' 도입

1일 담양서 시범 시행

노인 일자리 창출 기대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노인 취업 직종인 '병원 서비스 실버 코디네이터' 파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노인취업교육센터가 발굴해 도입한 '병원 서비스 실버 코디네이터'는 병원 등 의료기관을 방문한 고객과 환자에게 안내 및 맞바탕 등 자원봉사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1일부터 담양사랑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남노인취업교육센터는 민간 취업 직종으로 국제보건교육실천협회와 함께 '병원 서비스 실버 코디네이터' 과정을 개발, 교육 및 취업 희망자를 모집해 18시간(1일 6시간 총 3회)의 교육과정을 운영했다. 이 과정을 이수한 8명의 교육 수료자 가운데 면접 등을 통한 최종 6명이 병원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이들은 1일 3~4시간, 주 15시간 이

내, 월 49시간 내외로 근무하고, 최저임금수준을 보장 받는 범위에서 월 30만 원의 급여를 받는다.

이직 시범운영 단계이나 사업 과정과 결과를 지켜보고 개선·보완해 전남 전체는 물론 전국의 노인 전문 직종으로 확대·보급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과거 노인 일자리 대부분이 청소, 경비 등과 같이 단순 노무직이었던 것과 달리, '병원 서비스 실버 코디네이터' 사업은 18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를 대상으로 노인 이용률이 높은 지역 병원에서 2인 1조로 파견해 노인의 눈높이에서 노인을 맞이하고, 친절하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 노인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 양질의 일자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현숙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베이비부머세대 등 고령자의 건강하고 젊은 노인의 욕구에 맞는 새로운 개념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색직종 개발 등을 위해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착한보청기**

**보청기**

**무료 체험**

직접 체험 후 결정!!

✓ 잡음없이 깨끗한 소리    ✓ 웅웅~ 울리지 않는 보청기

062) 655-6544 (광주 남구 진월동 252-4 우리은행건물 3층)

http://www.greenmed.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160511-충-30812호

**자연그린한방병원**

한의원 최희석·정행진·김 신 원장

**암수술 이후 재발예방**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다 세밀한 진단과  
보다 올바른 치료가 필요합니다.

암, 난임, 성장장애, 비만  
피부질환, 근골격계질환

자연그린한방병원    대표전화 (062)952-3366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임로 392(월곡2동 679-3)